

요한 1서 1장

1. 요한의 방식을 따르면 사실을 확인하는 네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듣고, 보고, 주목, 만짐: 대상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1:1-2) 원래 이것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다. '내가 봤다'는 말도 힘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확실하니까 믿으라!

2.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1) 이것이 우리의 감각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한 마디로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 변질?

성육신: 성육신도 일종의 변질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변질이라도 엄청난 변질이다. 영원한 존재가 일시적인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맛있는 고기가 변하여 썩은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변질이다. 할렐루야! (투명인간에 물감을 덮어 씌었다면? 고삐를 꺾는 것, 위내시경, 폴리, 애지중지 기르던 소가 그만 죽었다. 먹어치우자. 무게를 달아서 파는 옷이나 책, 훈련소에서 죽은 신병은 개 한 마리 값.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이유 - 육체가 됨이라, 그런데 스스로 육체가 되었다. 필름 한통을 현상소에서 실수하면?)

왜 이래야 했는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 사귀려고! 이 사귀기를 위해서 스스로 물감을 덮어 쓴 셈이다(나타나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

무슨 방법으로? 빛 가운데 행하라!(=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라?) 그러면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봤다 - 우리가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들었다. 믿으라!

3. 이렇게 나타나신 그 분을 확실하게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사귀어 있게 하려함(3) 하나님, 예수, 우리, 너희 사이에 사귀어 있게 하려함이다. 투명인간이 친구를 사귀려고 스스로 물감을 덮어 쓴 셈이다. 얼마나 많은 유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인가!

4. 남의 말을 역으로만 듣는 버릇은 좋은 것은 아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뒤집어 생각해야 할 때도 있기는 있다. 가령,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좀 만나자'고 하면 특별한 부탁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꼭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니고'라면 '꼭' 자가 붙은 것으로 보아 돈 때문인 것이 확실하다. 저자가 유독 시작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 분에 대하여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분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5. 하나님을 무엇(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빛이시라(1:5) 어두움(죄)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임: 2장에서는 예수를, 3장에서는 우리를...

6. 빛 가운데 행한다(7)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본문에 있는 표현을 찾으시오.

죄를 자백하는 것(9)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2:10)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7.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는 어떤 자인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자(1:10)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5:10)이다.

8. 다음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생명(1:2) 말씀(1:1) 빛(1:5)

빛: 생명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여기서 빛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9.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 수 있다.

"애! 어쨌든 졸업은 해야 안 되냐?" - 학교에 출석도 잘 하지 않는 학생이다.

"넌 어째 수업시간만 되면 자냐?" -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학교는 잘 나오는 학생이다.

"너희 엄마가 너 하나 믿고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호강시켜 드려야 안 되겠냐?" - 재벌 공부를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하는 학생이다.

"올 한 해의 노력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 모범생들에게 하는 말이다.

요한의 시대에도 문제아들이 있었다. 당시의 문제아들이 하는 다음 말에 대해서 요한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예수가 오고 뭘 와? -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

2) 나는 죄 지은 것 없어! -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셈이다.

3) 왔으면 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7)

요한 1서 2장

1. 요한이 원하는 바 '너희가 범치 않기를 바라는' 죄가 무슨 죄인지 1장에서 사용했던 단어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자.

사림(1:3)이 끊어지는 죄: 대체로 보아 1장의 죄는(1:8-9)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하지만 2장의 죄는 이미 믿은 자가 예수를 버리는 죄를 말한다(1절의 '나의 자녀들').

2.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공갈을 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범죄 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미리 말하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왜 범죄 했을 때를 대비하여 대언자가 있다고 미리 말하는가?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딴 길로 가는 것'을 말한다. 죄 용서받을 길을 열어 놓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뜻이다.

3.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 아닌가?

죄 용서 받는 절차를 말하다보니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죄인이고, 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4. 예수는 화목제물이기도 하고 대언자(보혜사)이기도 하다.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화목제물은 대언자의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대언자의 자격을 얻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릴 자격도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5. 예수님은 대언자시다. 흔히 대언자를 법정의 변호사처럼 설명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변호사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말과 어떻게 다를까?

변호사는 나를 위해 조리 있게 설명을 하겠지만 결코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변호사는 결코 하지 않지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2)이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나의 계명을 잘 지켰고요.'

6. 안다는 말도 개념이 매우 애매한 말이다. 아이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다 알아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지식일 뿐이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음을 뜻한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7. '그의 계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계명(4) 말씀(5, 7) 사랑이 온전케 됨(5) 저 안에 있음(6)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6) = 형제를 사랑하라(10)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라는 요약된 형태로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형태로 요약하셨다(마 22:37-40).

8.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다(마 5:17). 이 말씀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말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다시 쓰는 것이다(8): 예수님의 교훈이나 사도들의 교훈이 구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쉽게 설명해준 셈이다.

9. 이 땅에는 많은, 자칭 빛이 있다. JMS, 박태선, 문선명 등등.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탁월한 이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든지, 기적을 행한다는든지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로 이끌지만 일단 빛은 빛이다. 이와 달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예수님을 무슨 빛이라고 하는가?

참 빛(8):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형제 사랑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핍박받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다.

10. 8절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새 계명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자들의 행위가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했기 때문일 것?

11. 1-11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자신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린 놀라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자. 이것은 새삼스럽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배웠고 실천했던 바로 그것이야.'

형제를 사랑하자(10): 1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1:3)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알만큼 알면서 옆으로 빛나간 사람들을 옆두에 두고 쓰기 때문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 방법이란.

12. 순서가 이상하다. 아이들(자녀들), 아버지들, 청년들 이걸 무슨 순서일까?
영적인 성숙의 순서: 아이들은 신앙의 초보, 아버지들은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 청년들은 이단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신앙의 용사를 가리킨다.
13. 12-14은 칭찬, 격려, 꾸중, 권면, 충고, 회유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가까울까?
칭찬: 효과적인 권면에는 칭찬이 필수다.
14.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니(15) 염세주의자가 되란 말인가?
삶의 최종 목적(16,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땅에 온 것과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인 줄 알고 노력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로지 돈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쓰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인젠가 이 모든 것을 깨끗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사랑함이 아니다. 바닷가에서 열심히 모래성을 쌓던 아이가 엄마가 부르면 버려두고 떠난다. 우리는 그때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15.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16), 한시적이다.(17) 창조된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정욕의 대상인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16.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한 지 벌써 2,000년이 다 되었다. 그 때도 마지막, 지금도 마지막. 또 대체 언제가 마지막일까?
 1) **광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의 사이
 2) **협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라는 뜻이다. 예수님도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한사코 그 때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시 오실 때 거창한 환영을 받을 생각이라면 몰래 알려주시겠지만 결코 그러실 예수님이 아니다. 어느 때가 말세인지 짐작할 수 없도록 말씀하셨다.
17. 미운 오리 새끼가 미운 짓을 한 것은 종이 다른 새였기 때문이라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본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19) 함께 교회생활을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교회에 속하여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18. 권면하면서 알맞은 칭찬을 하면 더욱 효과가 크다. 그러나 여기서 칭찬처럼 보이는 것은(20-21)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당시의 이단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것이다. 핵심은 '너희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유명한 이단인 영지(靈知 Gnosticism)주의자들이 무슨 주장을 했을까?
자기들만 참된 지식을 깨달았다(=너희는 진리를 모른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영적 무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비문자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은 영지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요한은 독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
19. 알지 못하는 자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에게 쓴다? 아는 자에게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격려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가르치려고 한다. 진리를 아는 자에게 새로운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라고 말한다 (1 범죄치 말라, 9-11 빛 가운데 거하라, 15 세상을 사랑치 말라, 23 아들을 부인치 말라, 28 그 안에 거하라).
20.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왜 썼는지 그 이유가 나타난다. 교회에서 일부가 이탈하여 나갔는데 그들이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탈한 그들은 왜 적그리스도인가?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22) 요즈음은 한 수 더 떠서 이 규정을 교묘하게 비껴간다. 즉 하나님과 예수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같은 자리에 올리거나 더 위에 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더 큰 권위를 가진 다른 말씀을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21.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해매는 것이 사람의 기본 생리인지도 모른다. 반면에 복음이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24) 도중에 다른 사상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미혹해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단에 대항하는 유일한 가르침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라면 이단에 대한 대응치곤 좀 나약한 것 아닌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 것도 전할 것이 없다고 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전한 것은 십자가의 도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복음이다.
22. 처음부터 배운 것을 굳게 잡으면, 적그리스도의 꾀임에 빠지지 않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됨 = 영원한 생명을 누림:

23.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교회 안에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이미 배운 것으로 족하다(20-21). 적어도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더 이상 다른 교훈이 필요 없다. 영
똥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스승으로 삼지 말라.

유일한 스승은 성령이다. 오직 기름부음(성령)만이 너희를 가르칠 수 있다(27). 가르치는 말씀이 진
실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요한 1서 3장

1. 2장에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한 요한이 3장에서는 또 '서로 사랑하라', '범죄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를 요한은 무엇이라고 하는가?(1-5)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주를 향한 소망 때문이기도, 3)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가(1)?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분이 나타나셨는데(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5)? 하나님의 사랑이 만병을 다스리는 약이다. 덮어놓고 '죄지으면 지옥간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2. 그리스도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의 표현을 이용하여 대답한다면? "저 놈 참 이상한 놈이야", "야, 무슨 재미로 사니?", "도대체 왜 그래? 지금이 어느 땐데 캐캐묵은 소리고 있어?", "들었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1) 불신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다. 실제로 이기적이거나 어리석게 처신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1).

3.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은 권닝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다른 누구 때문이거나 법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더럽힐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장차 하나님을 대면할 자이기 때문에(2 = 주를 향한 소망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온전하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므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현재보다는 장차 될 일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준항이가 변사도의 요구를 한사코 거절한 것과 비교해 보라.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거지 신세로 전락했지만 끝내 자신을 거지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지 왕자는 결국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된다.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남들이 보기에 그럴 듯한 삶이 아니라도, 다른 학생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삶이 못 된다 해도(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누구인가?

4.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이렇게 무력한가? 겁도 많고 못하는 일도 많고...?

현실보다는 장래의 모습을 그리며 현실에 굴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마 5:48).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거나 말거나 장래에는 우리가 그 분과 같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해야 한다. 그 날이 되면 우리도 '주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이다(빌 3:21).

5.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가진 '영지(영적무지로 부터 해방된 영적 통찰력)'로 인하여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거리낌 없이 행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어떤 행위도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말이 무엇일까?

죄는 불법이다(4) 그걸 누가 모르나?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자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만이 죄가 없으시다(=죄를 없앨 자격이 있다)고 강조한다. 아니,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분임을 강조한다.

6. 그 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며(6)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9)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범죄를 말한다. 본의가 아닌 실수나 욕심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7. 아무리 마귀지만 100% 죄만 지을까?(8)

처음부터 범죄함이란 100% 죄만 짓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다면 그 무리 안에서 행한 어떤 선한 행위도 선한 것이 아닌 것과 같다.

8. 혹시 잘못했을 때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씨(9)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시 119:11, 렘 31:33)과 성령(롬 8:11, 고전 3:16)일 것이다.

9.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10) 물론 이 경우에도 결과보다는 동기적인 측면을 더 중시해야 한다.

10.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다. 요한은 여기서 가인의 죄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의를 행치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함, 혹은 동생의 의로움에 대한 시기.

11.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조권이 무엇인가?(14) 좀 이상한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단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자의 외적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다.

12.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15-16)

그가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16): 우리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분이 목숨을 버리셨는데(요 15:12-13)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미워하는 것이 곧 형제를 죽이는 것이니(15) 그 분이 목숨을 버려 살려놓은 형제를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13. 가인과 아벨을 짝지으면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은 가인과 예수를 짝지어 놓은 셈인데, 어떻게 짝이 되는가?

형제를 죽인 자와 형제를 살린 자

14. 인간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다. *I love you*는 *I love myself through you*라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 여전히 이기적인 면이 강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 무조건적이고, 내리 사랑이다.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다.

15. '형제의 궁핍함'이란 어쩔 수 없는 궁핍함을 뜻한다.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할 곳도 없는 경우 말이다. 그런데 게을러서 궁핍한 것은 어떡하지? 아예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궁핍을 즐기는 자는?

무조건 퍼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점을 기억하면서 도와야 한다. 본문의 '보고도'라는 말은 그냥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는 상태'를 말한다. 당연히 도와야 할 처지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분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도와주어야 한다.

16. 요한이 독자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성도들이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그러면서 노파심에서 당부하는 말은 무엇인가?

실천하라(18):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믿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법이지만 노파심에서 사족을 덧붙인 것이다.

17. 요한의 말처럼 그렇게 사랑을 행하면 사랑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사랑을 실천하는(주는)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19, 21-22):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는 유익이 있다.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체험하는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나 '기도의 응답'이란 보너스도 있다(21-22). 주의할 것은 그럼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믿는 자의 의무일 뿐이다.

18. 혹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 수 있다면(20) 그게 무엇일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을 경우에 양심이 찢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형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말이다.

19.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 1서 4장

1. 여기서(1, 2절) ‘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꿈으로 주어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운 가르침?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 초대교회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때였음을 참고하자.

영적인 현상을 동반한 가르침(영감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가르침) 예언이나 방언 같은 영적인 현상이 풍성하던 시절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도 잘 분간 하라는 말이다. 그런 시절에는 사단도 그런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대에도 이단들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런 이적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의 가르침마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2. 꿈을 해석하는 기준이 뭘까? 영험한 기도원 원장이 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하라(1) 이게 더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가능한 일이다.

3.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가르쳤을까? 본문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가현설(Docetism: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기만 했을 뿐이다)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

4.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들을 분간하기가 쉬웠을 것 같다. 하나님의 영임을 알아내는 방법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의 여부였으니까. 요즈음은 이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요즈음 이단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교묘히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고 한다가나 예수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 백 명이라고 한다.

5. 누군가가 신비한 체험을 말하고, 기적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 그의 말이 비논리적이고 허황해도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다. 목사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라? 교단 신학교를 나왔으니 믿는다? 스스로 분간할 능력이 부족하면 차선택할 수는 있으나 좋은 태도는 아니니 성경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자.

6. 하나님께 속한 자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보다 크기 때문(4) 세상 사람들을 세상적인 지혜로 이기는 것은 제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겨야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일 뿐!

7.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형편이다. 이 좋은 소식을 왜 사람들이 기쁘게 받지 않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한 탓도 있을 수 있다.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란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휘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함부로 단정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8. 직장에서 우리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더 잘 통한다. 우리 얘기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 이렇다고 하는가?

저희는 세상에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4-5)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저희는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셈이다.

9.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간하는 기준이 ‘우리의 말’이네(6). 우리의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이 한 말을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 신약성경이다.

10.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사랑타령인가(7-8)?

적그리스도를 분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극복하거나 그들에게 미혹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도 바로 사랑이었다. 험한 앞날을 헤쳐 나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었다. 아마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랑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형제사랑 말이다.

11.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아들)을 내어 주신 희생이 따른 사랑: 내리 사랑이다(19).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12. 장애 소 팔러 간 사람이 병아리 한 상자와 소를 바꾸어 왔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본문 어디에 있는가?

9절,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 10절,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와 죄인된 피조물을 맞바꾼 셈이다. 우리 입장에서 한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기가 막히는 일이다.

13.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멸시와 구박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11)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든지 더 큰 사랑을 하게 된다.

14.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나들이 할 일이 있어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다 갈아 입고 길을 나서도 주변사람들이 알아본단다. 뉘새(비린내)가 난단다. 사람이 직업을 숨길 수 없단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직업의식을 드러낸단다. 본문의 어떤 내용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숨길 수 없다. 의식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11, 12, 19절).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필연성(당위성)이다.

15.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 나타난 절은 몇 절인가?

9절

16. 하나님을 보는(아는) 방법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7-8, 12)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져 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치 장님에게 색깔이, 귀머거리에게는 음악이 무의미하듯 하나님과 우리의 감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컴맹에게 286이든 586이든 무슨 느낌이 있겠나?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 '사랑하면 보인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옴의 고난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다.

17.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이다. 화목제란 화해를 위한 제물이다. 그러면 누가 제물을 내야 하는가?

죄지는 당사자가 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싼 값으로 내놓으셨다.

18.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뜻이다. 결국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말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18).

19. '주의 어찌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17)는 말씀은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과 같다'는 말이다. 무엇이 같다는 말일까? 바로 앞 구절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님이 온갖 고난을 다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것이다.

20.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두려움이 없는 것(18)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당연히 그 분의 심판도 두렵지 않다.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는가!

21.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형제가 내게 유익이 되거나 장래에 어떤 유익을 바라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내 밥? 내 호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형제:

2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가?

성령을 통해서(13)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뿐이다.

23.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교훈을 반박하는 것(2)이 본문 전체의 흐름이다.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9) 예수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이 큰 사랑도 부인하는 셈이다' 이 외에 또 어떤 표현으로 이 교훈을 반박하고 있는가?

우리가 친히 '보았다'(15).

요한 1서 5장

1. 처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던가? 그와 같은 말을 찾아보자.
내신 이(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자녀)를 사랑하느니라(5:1)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울 수밖에 없는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도 미운 놈이 있든 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기심이 작용하는 수도 있고... 목표를 '하나님의 일' 보다는 '하나님 사랑'에 두어야 한다.
2.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표현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표현을 비교해 보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전자는 믿음이 먼저고 자녀가 되는 것이 나중이란 표현이지만 후자는 태어나는 것이 먼저고 믿는 것이 나중이다. 실제로 원어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믿는 = 현재시제, 난 = 완료시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의미가 강하다.
3. 형제 사랑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하나님 사랑(2)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도 동일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웃이나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다.
4.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란다(3). 정말 그럴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키려면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쉬워진다. 스스로 진 짐은 무겁지 않음과 비슷하다. 예수님도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다(마 11:30).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일치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쉬워진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자원하여 행하는 일은 아무리 육체가 고되어도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신앙을 가지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것보다 구속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자연스럽다. 그의 계명이 결코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5. 여기서 '세상'이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2:15-17).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기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5)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자신감이나 자기 최면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을 힘입어 이기는 것이다(요 16:33).
6. 세상을 이긴다고(4) 누가 들으면 웃을 일이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긴다고? 그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세상에 압도(굴복)당하지 않고 제 길을 간다는 의미: 흐르는 강물과 맞서서 이 물을 거꾸로 밀어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이 흐름에 압도당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간다는 뜻이다. 작은 배를 하나 띄우면 가능하다. 모두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돈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모든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 믿음은 결코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다. 온갖 물결을 가볍게 넘어가는 방법이다.
7. 초대교회의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에게 임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에게서 떠나셨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였다. 아마도, 이런 사실을 반박하는 요한의 표현은 무엇인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세례, 피는 수난을 의미한다. 육체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말이다.
8. 하나님께서 언제 아들에 관하여 증거 하셨는가?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에 요한이 증거 하였다(요 1:31-34).
9.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간하는 기준이 '우리의 말'이네(6). 우리의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
성령, 물, 피: '성령과 물과 피 셋이 합하여 하나라(8)'는 말은 '의견이 하나로 합치됩니다'라는 뜻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물) 시에 요한이 증거했고(요 1:32) 십자가상(피)에서는 로마의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이 증거했고(마 27:54, 막 15:39)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린 사건들도 있었다(마 27:51-54).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10.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관한 증거이다(9b, 10c).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증거(차라리 '증언')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영생(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다(11절).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10).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다.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 위함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랜 구원의 역사

를 주관해 오셨으며 마침내 생명을 전할 독생자를 보냈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11.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글을 썼다. 전도용이 아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쓴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13)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썼다는 말이다. 믿기는 믿어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의미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대부분 아닐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도 그럴 수 있다. 이미 얻은 것을 누리기 위함이다.

12.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고?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다: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13.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무조건 졸라대는 것?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14) 그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 그분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해야지, 성경을 배우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로 빠질 위험이 아주 높다.

14. 예수쟁이들은 쥐뿔도 없으면서 간행이만 크단다. 사실인지도 모른다, 그만한 백이 있으니. 무슨 백?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15. 사망에 이르는 죄란 어떤 죄일까?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이 있는데?

성령휘방죄(마 12:31, 막 3:29) 요한의 문맥에서는 배교를 뜻한다. 그래도 돌아오도록 기도하면 안 될까? 아마도 그래서 강력하게 금지하지 않고 구하라 하지 않노라'고만 말하는 것 같다.

16.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단다(18). 예수님께서 마음 속의 욕심, 탐심, 질투도 죄라고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말한다. 본의와 다르게 연약해서 저지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실수할 수는 있지만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17.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이나 예수 안이나 같은 곳이다. 결국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한 모습이다(요 17:21).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벧후 1:4)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요한2서

1. 요한은 자신이 쓴 글(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잘 밝히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서만 몇 번 나올 뿐이다. 그런 요한이 여기서는 이름 대신 '장로'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말을 해도 될 만한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듯하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책망할 만한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일 것이다.

2. 인사말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과 달리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 성도를 가리켜 '진리를 아는 자(1), 진리에 행하는 자(4)'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시는 분을 '진리'라고 표현하며(2), 우리와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를 사랑하는 이유도 진리 때문이라고 말한다(2).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9절까지 포함한다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다.)

3.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당시의 관행이었던 모양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이 '긍휼'이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결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린다. 이 표현이 인사말로 관행화 된 것은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이다.

4. 장로가 이 여자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속에 거하는 진리 때문(2): 우리의 진정한 가치도 바로 이 진리 때문이어야 한다.

5.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다. 요한은 언제 이러한 교훈을 확실하게 받았을까?

요 13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당부하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6.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 둘 무슨 순환논리 아닌가?

사랑하라는 말이다: 과학이나 수학에서 이렇게 증명을 시도한다면 이것은 순환논리의 오류지만 수 사학에서는 강조법이라고 할 수 있다.

7.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 되었지만 원문의 7절 초두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온 것이 상관이 있다는 뜻이다.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당시의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던 단골 메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9. 사도들의 가르침(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했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므로 물질과 접할 수 없다)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근사하게 보였을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9절의 '지나쳐'): 몸에 해로운 음식이나 과자가 모양이나 빛깔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 고상한 철학이나 탁월한 논리보다 몸으로 흘리는 땀이 더 진실에 가까울 때가 많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했을 수도 있다.

10. 요한1서에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요일 4:7b-8a)라고 했다. 이 말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

9절: 결국,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11.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교제를 끊으라고 할까?

사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교류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쪄가 단호하다. 여기서 집이란 개인 가정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의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짓 교리를 단호하게 배척하라는 말이다. 온정을 베풀 성질의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관계도 끊어야 하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용하겠지만 반성도 좀 해야 한다. 영터리 교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단 추종자들을 단호하게 이겨내지 못하는 허약한 성도들을 양산한 교회가 반성해야 할 여지가 있다.

12.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종이와 먹으로 쓴 것은 뭔가 부족한 모양이다. 무엇이 부족할까?

성도간의 교제: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제가 따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된다. 단순하게 지식만 전하려면 글을 잘 써서 보내도 될 것인데...

13. 본론은 4절에서 11절까지다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14. 요한2서는 요한1서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요한1서에서 강조한 내용 중에서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자(5 요일 4:7, 11) 그 외에도 진리(3 요일 1:8, 2:4) 계명(4-6 요일 2:3, 4)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7 요일 4:2) 미혹하는 자(7 요일 2:26) 적그리스도(7 요일 2:18, 22, 4:3) 등이 있다.

요한3서

1.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되었을까?

실제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은 틀림없지만 당시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나 감독도, 성경도 없던 시절에는 교회를 누가 돌아보았을까? 이 곳 저 곳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를 돌아보았던 형제들(나그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순회 전도자)이 이방인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보조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때 형제 된 너희가 그들을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라는 권면은 초대 교회에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음이 틀림없다.

요한3서를 생각하면 흔히 삼중복음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현실적인 복을 강조하는 구절로 인식하게 되면 한 부분이 너무 강조되는 셈이다. 영육간에 고르게 성장해야 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영적인 부요함이어야 한다. 그러나 요한삼서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도우라는 것이다.

2. 2절은 영혼이 잘 되라는 것인가, 아니면 법사에 잘 되라고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은가?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지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법사에, 즉 세상 재물의 복에 더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 말씀은 ‘영혼이 잘 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것처럼 부수적으로 세상 재물과 건강의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이 이용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한다. 마치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마 6:33의 오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생활도 가난한 사람에게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인가? 법사에 잘 되는 것이 믿는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러서는 안 된다.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결국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종목표여야 한다.

3.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3), 사랑을 실천하는 자(6)

4. ‘목사가 이렇게 고생만 하고 힘이 드는 줄 몰랐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아주 늦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모가 된 분의 푸념이다. 정말 왜 그럴까?

돈도, 명예도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르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4). 아이들이 병아리를 키우는 것도 그렇게 신기하고 꽃을 기르고 채소를 가꾸는 것에서도 경이로움을 느끼거든 하물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을까?

5. 가이오에게 하는 말(5-6)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양쪽 다: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앞으로도 그 일을 더 잘 해주기를 당부하는 말이다.

6.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자들이 이방인에게는 아무 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아무 것도 받지 않았을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그네 된 자들이란 전도사들이다. 그들이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케 하고자 돈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실은 돈이 필요한 데도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니 이것을 아는 너희가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이다. 그런 사정을 아는 너희가 그런 분들을 대접하고 돌본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사례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을 알만한 성도들이 그릿 시내의 까마귀가 되라는 말이다. 선교사들이 교회의 후원을 강력히 요청하면서도 현지인들에게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8)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나가서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한 형제들을 영접하는 것: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을 뒤에서 돕는 것이나 거처할 곳이 마땅찮은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 가난한 목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 등을 말한다. 복음을 위해서 힘들게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8. 디오드레베가 위대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악한 말로 폄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으뜸이 되려고(9):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꺾어내리는 거야 악한 심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당연한 일 아닌가? 성도는 악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한다. 여기서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나 교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사도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뜻이다.

9. 나쁜 말을 한다 해도 용서해야지 그걸 잊지 않으면 되나(10)? 더구나, 말끝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요한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요한2서 1:10-11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요한 사도의 편지를 무시하고 전도자를 영접치 않고 그렇게 하는 교인들을 내어 쫓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10. 요한이 이 편지 이전에 다른 편지를 보냈지만 디오드레베가 그 내용을 거부했고 가이오는 순종했던 모양이다. 그 전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형제들을 대접하라: 10절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1.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기 때문이다(11)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본받는 경향이 있다.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은 욕을 먼저 배우는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도록 더 적극적으로 애써야 한다.

12.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뵈옵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 '선'이 단순하게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의 얘기다. 그렇다면 이 말이 디오드레베를 어느 정도로 책망하는 말인가?

디오드레베는 이단이다. 그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한다는 선언이다.

13. 사도가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고하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디오드레베가 일으켜 놓은 문제를 수습하려고 보낸 사자: 요즈음 식으로 표현하면 수습전권위원이 아니었을까?

14. 요한 3서는 먹과 붓으로 썼다. 요한 2서는 뭇로 썼더라?

종이와 먹(요이 1:12) 종이는 아주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니 이 때는 당연히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였다.

15. 사도의 권위마저 인정치 않는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에 이렇게 짧은 서신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이 편지의 결과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도 교회마다 읽혀지고 정경에 삽입되었다는 것은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사도 요한의 권위가 살아 있었던 모양이다.

유위부족(猶爲不足): 오히려 모자람 (~ 해서: 그것도 모자라서)